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31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6월 30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이정훈 지회장
259일만에
고공에서 지상으로

259일만에 지상으로 돌아온 이정훈 지회장

지난 28일 유성영동지회 이정훈 지회장이 고공에서 지상으로 돌아왔다. 작년 10월 13일 고공농성에 돌입한지 259일 만이다. 25m 상공에서 한겨울 살인적 추위를 온몸으로 다 견디며 노조파괴 사용자 구속을 외쳤던 목소리를 이제는 지상에서 듣게 됐다. 이정훈 지회장은 그동안 장기간의 고공농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돼 더 이상 고공농성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유성 대책위의 판단에 따라 내려오게 됐다.

안정 되찾기도 전에 조사에 나선 경찰

이정훈 지회장은 지상으로 내려오자마자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진단을 받았다. 병원 진료 중에도 경찰은 계속해서 체포영장 집행 의사를 내비치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정훈 지회장은 당당히 조사 받겠다고 결심하고 저녁 8시경 응급차를 타고 청주 흥덕경찰서로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지친 몸을 이끌고 조사를 마친 이 지회장은 대전 한국병원에 입원했다. 노조파괴범 수사에는 관심도 없는 검, 경찰이 노조 때려잡는다는 아주 적극적이었다. 이 지회장은 고공농성을 통해 법에 따라 노조파괴 범죄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대부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더 이상 검찰에게 사법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니 법원이 직접 판단하여 기소해달라는 것이다. 고공농성을 통해 검찰에게는 일말의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 지회장은 지상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투쟁을 만들것이다.

이제 지상에서 직접 불는다

8개월간의 고공농성은 수세에 몰렸던 노조파괴 사업장의 투쟁을 공세적으로 돌려놓았다. 사업장에서 위축되어 있던 노조파괴 사업장의 투쟁을 알려내고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냈다. 각 사업장에서는 공세적인 재조직 사업이 벌어지고 있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희망버스가 조직되기도 했다. 이제 지상에서 좀 더 강력하고 자본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투쟁을 벌일 것이다. 유성 대책위에서 이정훈 지회장을 지상으로 소환한 것도 이 투쟁을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고공농성을 통해 강화된 현장 조직력과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이제 더 강하게 자본과 불을 것이다. 유시영은 단단히 각오해라.

지상에서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다!
노조파괴 사업주 반드시 구속시키자!

‘노조파괴 반드시 처벌’ 법원 재정신청 1인 시위

우리나라에서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워 처벌을 받게 하려면 반드시 검찰이 기소를 해야한다. 검찰만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독점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각종 비리가 벌어지기도 한다. 검찰만 장악하면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애초에 법정에 설 일이 없어진다.

사업주들이 노조파괴에 발벗고 나섰던 것도 정권 차원의 비호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불법을 동원해 노조파괴를 해도 결국 검찰이 전부 막아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리도 미친 개처럼 날뛰었던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노조파괴 범죄를 전부 무혐의 처리해주었다. 그 덕분에 이 범죄자들이 현장에서 아직도 고개 뺏뺏이 들고 다니며 아직도 불법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검찰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이제 노동자들이 법의 심판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직접 기소를 요구하는 재정신청 뿐이다. 지부는 유성, 보쉬전장, 컨티넨탈의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지난 25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부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다같이 승리하는 2014년 결의!

지부 확대간부들이 투쟁 승리를 결의하며 한 자리에 모였다. 노조파괴 분쇄 투쟁, 임단투, 삼성투쟁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이 날은 컨티넨탈지회 조합원들이 2013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파업투쟁에 나서면서 눈길을 끌었다.

보통은 그 해 임단투 투쟁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이지만, 올해는 다양한 투쟁의 승리를 결의하는 자리였다. 유성지회는 2011년, 컨티넨탈은 2013년 임단투를 아직도 끝맺지 못한 상태다. 그리고 그 임단투는 단순한 임단투가 아니라 노조파괴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투쟁이다. 또 2014년 임단투를 진행하고 있는 지회들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했다.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노동부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을 갈취하고 자본에게 임금 착취 방법을 훈수 두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회를 마치고 삼성전자서비스 서대전센터까지 행진한 대오는 서대전 센터 앞에서 염호석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무노조경영의 상징 삼성에서 반드시 민주노조를 사수하자고 결의했다.

한편, 삼성의 76년 무노조 경영에 맞서 2명의 열사를 보내며 처절히 싸웠던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8일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 앞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의 “삼성을 무너뜨렸다! 우리가 해냈다!”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최종범, 염호석 열사여! 임단협 쟁취했습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직무대리 곽형수, 아래 지회)가 6월28일 삼성그룹 노동조합 최초로 임금단체협약을 쟁취했다. 염호석 열사 산화 이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전 조합원 농성돌입 41일만이다.

지회는 28일 19시께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기준단체협약(아래 기준협약) 승인을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 534표(87.5%), 반대 75표(12.3%), 무효 1로 가결했다.

기준협약 가결을 확인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사는 21시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조인식을 열었다. 조인식을 마친 지회는 SNS를 통해 “99% 노동자에게 모욕이자 비극이었던 기나긴 시간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동료들의 목숨으로 지키고 싸우며 쟁취한 이 노조, 꼭 지키고, 더 키워서 전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희망으로 만들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교섭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진 것을 환영한다”며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또 “故 염호석씨의 뜻하지 않은 사망에 대하여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26일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실무교섭팀은 회사쪽 교섭팀과 △염호석 열사 △업체 폐업 △조합활동 보장 △임금 등 단체협약의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일치했다. 실무교섭팀은 이렇게 확정된 의견일치안을 바탕으로 다시 교섭을 벌여 기준협약안을 완성했다.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iswcool@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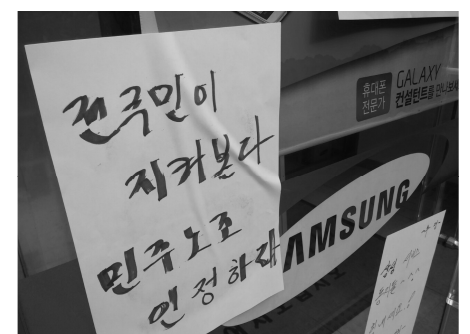
<6.23 노조파괴 규탄, 세월호 촛불집회>



<6.25 유성지회 산재신청 기자회견>



<6.25 임단투_삼성투쟁 승리 결의대회>



<6.25 임단투_삼성투쟁 승리 결의대회>